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주 제:	“ 부부의 결합 ”	“연중 제 27 주일 “	2009년 10월 4일
복음 묵상:	[마르 10,2-16]	[창세 2,18-24]	[히브 2,9-11]

혼인미사 주례 때 저는 강론 끝에 꼭 이 같은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이젠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이며, 태어날 땐 다른 하늘을 보고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같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며, 태어날 땐 서로를 모르고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이며, 태어날 땐 다른 부모를 섬겼지만 이젠 한 부모를 섬기게 될 것이며, 이제껏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두 발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에 주님의 무한한 행복이 깃들길 기도드립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흔히 짐승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는 암컷과 수컷의 부부애가 사람의 경우를 뛰어넘는 예가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총새가 그러합니다. 물총새는 대양을 횡단할 때에 반드시 암컷과 수컷이 한 쌍이 되어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행을 하다가 암컷이 지치면 수컷이 암컷을 업고 비행하며 체력을 회복한 암컷이 다시 수컷을 업고 비행하기를 반복하며 목적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에로의 비행은 부부중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짐을 서로가 함께 나누며 지고갈 때 사랑의 비행이 시작될 수 있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을 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얼굴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지붕 아래 한술밥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성격을 맞추려다 보니 얼굴까지도 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둘 사이에는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하여 서로가 만나게 되었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부의 결합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7-9)
 (배 광하 신부님 강론 중에서)

금주의 예언 말씀

- *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진심으로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구할 것이니 기도로 진심으로 간구할 때 너희의 영원이 ___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주변의 사람까지도 ___ 너희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아들딸들아,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 *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나의 사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면 내 안의 사랑을 펴가 가십시오. 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뿔어져 나오는 우물물과 같습니다. 나의 사랑을 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담아가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 * 그렇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변함없는 나에게로 오너라. 한결 같은 나에게로 오너라. 너희들에게 한결같이 사랑과 자애를 베풀고 변함없이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나에게 오고, 한결같은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라. 아이들아, 너희들은 어리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고 너희들의 실수를 덮을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너희들은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값없이 모든 것을 가져가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한없이 어질고 예쁜 나의 아가들이다. 그러니 변함없는 나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여라
- *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과 일치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저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 *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곳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제가 놓지 않고 꼭 잡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함께 있으며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복음 [마르 10,2-16]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추석은... ♡

-김사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집 뒷마당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보름달이다.

달밤에 달구 잡기 하다 넘어져
무릎이 깨어져 울던 일곱 살이다

한참 잊고 살다 생활에 지쳐
고향 생각나면 달려가던
뒷동산에 만나던 첫사랑이다.

큰어머니가 해주던 찹쌀 강정과
송화 가루로 만든 다식이다

울담 안에서 오가던 정을
건네주던 푸성귀 같은
내 사랑 여인아

책갈피 속에 곱게 간직한
진달래 꽃잎 같은 내 친구 야

괴롭고 힘들 때
영혼의 안식처
내 쉼터인 것을



오늘의 말씀 사탕;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전디어 뵙니다(1 코린 13.7)."